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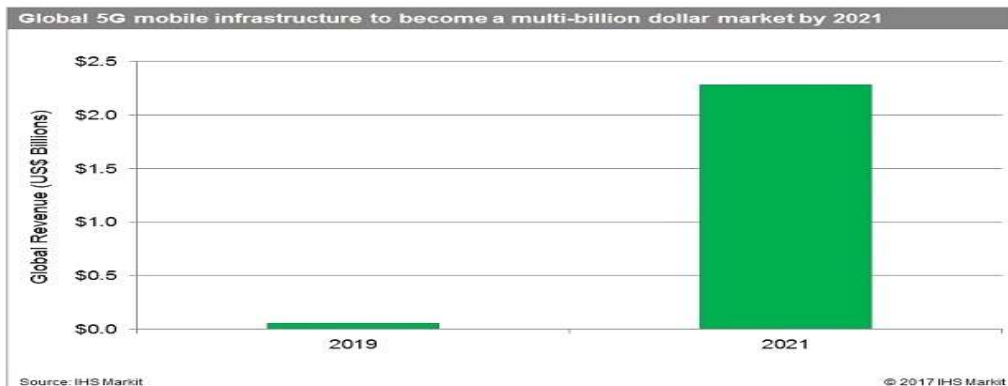
지역분류	세계공통
보도일/기관명	2017. 3. 9.(목) / FierceWireless
제 목	매크로셀 시장, 2016대비 14% 감소
출처(URL)	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wireless/macrocell-market-plunged-14-percent-2016-ih-says

【 개 요 】

- IHS Markit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매크로셀 인프라 시장은 LTE 성장 둔화와 함께 전년대비 14% 하락함
- * 매크로셀 : 이동 통신망에서 스몰셀(small cell)에 대비되는 용어로 수 킬로미터(km)에서 10여 킬로미터(km) 반경의 서비스 영역을 가지는 셀로 스몰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출력, 고용량의 기지국에 의해 제공됨

【 주요내용 】

- 인도, 미얀마,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‘활발한 활동’으로 지난 4 분기에 110억 달러의 7% 성장을 기록하였음
 - LTE 투자는 E-UTRAN(UMTS* 지상파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) 덕분에 분기대비 6% 증가했으나 연 16% 감소세를 보임
 - * UMTS(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) : IMT-2000의 유럽명칭
 - 또한 일본의 W-CDMA 투자에 따라 2G와 3G는 순차적으로 10% 증가세를 보임
- “하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지난해 모바일 인프라를 대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” 라고 IHS는 보도자료에서 밝힘
 - "2016년 전체를 살펴보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세계 모바일 인프라 수익은 총 430억 달러로, 2015년 480억 달러에서 10% 하락하였으며, 2G, 3G 및 4G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익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LTE-A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2% 규모(155억 달러) 성장하였다"
- 에릭슨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가장 큰 인프라 사업자로, 화웨이와 노키아가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중국 업체는 내수시장의 수요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음
- IHS는 향후 5G 네트워크 출현에 따른 시장 성장이 기대되나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밝힘



- “전체적인 감소에 따라 2017년 LTE의 지표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LTE 시장은 복합연평균성장률은 2016년부터 12.4%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259억 달러의 최고치에서 120억 달러로 하락하였음”
- 2021년까지 모바일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획되고 있지만 초기 5G 출시가 전체적인 성장으로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↑ 목차로 이동](#)